

최고의 깨달음은 '무집착'



35 살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殺佛殺祖).”
이 말은 중국의 유명한 선승 입제이현(?~867)의 말씀입니다. 입제 선사 말씀은 항상 좀 과격하고 파격적입니다.
제가 열여덟 살 무렵 월정사에서 하안거를 할

약이색견아(若以色見我) 이음성구아(以音聲求我) 시인행사도(是人行邪道) 불능견여래(不能見如來) 겉모양이나 형상, 그리고 음성에서 여래(진리)를 찾는다면/ 그는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진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금강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참선하는 자가 부처나 조사의 형상과 이름에 얽매어 버린다면 그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나 조사가 깨달은 경지에도 안주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제자가 자신의 목표를 스승에 둔다면 그는 스승 이상의 경지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이상적인 목표로 생각한다면 그는 아버지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수행자도 부처나 스승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주하면 그 역시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형상 관념에 막히면 진리 제대로 볼 수 없어 '부처·조사 경지 뛰어넘으라'는 말과 같아

때입니다. 의례히 하안거를 시작하는 날(음 4월 15일, 결제일)에는 산내 대중들이 모두 모여 조실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들읍니다. 그런데 탄허 스님께서 하안거 법어를 하시면 중에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말씀 끝에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니(殺佛殺祖). 불제자로서 아첨저 녀으로 예물을 올리면서, 어떻게 부처님도 죽이고 조사 선지식도 죽일 수가 있을까? 두려움으로 가슴이 쿵당거렸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니,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러나 보통 사람도 아닌 입제 선사의 말씀이고 또 탄허 스님의 말씀이므로 무언가 다른 뜻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에서 단하연전 선사가 방이 추워서 법당에 모셔져 있는 목불(木佛)을 쪼개서 아궁이에 불을 댔다는 고사를 읽고 나서야 겨우 이해하게 되었지만 속 시원한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도 안 되었는데 억지로 이해한 척 한 것뿐입니다.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여라(殺佛殺祖).”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정말로 부처를 보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부처나 조사는 권위와 형상에 사로잡히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또는 “부처나 조사가 깨달은 경지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형상에 사로잡히면 진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의 사상적 토대는 ‘공(空)·중도·‘무집착’입니다. 이것은 고정된 관념이나 개념, 가치관을 부정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고의 깨달음은 다름 아닌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즉 무집착입니다. 부처나 조사의 항상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지만, 그러나 부처나 조사의 성스러운(형상)에 얽매었다면 그 역시 집착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는 말을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설사 살아 있는 부처가 아닌 목불(木佛)이라고 해도 감히 불제자로서 쪼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불살조(殺佛殺祖)는 선어 가운데 ‘부처의 경지도 뛰어넘고(超佛) 조사의 경지도 뛰어 넘으라(越祖)’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형상과 성스럽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참선자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 부처냐’는 질문에 ‘다른 똥 막대기다’ ‘마삼근’이라고 한 것도,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부처의 경지도 뛰어넘고 조사의 경지도 뛰어 넘으라’는 말도 모두 관념의 장벽에 막혀 있는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토록 세속적 가치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 가치관은 세속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속의 보편적 가치관은 지식과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만, 선은 무소유와 무집착을 중시합니다. 또 선어는 대부분 파격적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번뇌에 찌들어 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그 번뇌의 골레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파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운창화 민족사대표

깨달음은 여인들의 수행법

“여래의 가르침에 의지해 수행하라”

36 쏜나 비구니

“지침 줄 모르고 정진한 이는 쏜나(Sonā) 비구니다.”

<앙굿따라 니까야(增支部)>에서 부처님께서서는 뛰어난 제자들의 정진을 언급하면서, 쏜나 비구니를 ‘정진 제일’이라고 칭찬하셨다.

쏜나 비구니는 출가하기 전에 결혼해서 열네 명이라는 많은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바후땀따(巴呼提提)라고 불렀다. <범구경>과 <장로니계주석>에는 그녀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한 때 사왓티(舍衛城)에 한 부부가 결혼한 아들·딸 열 넷과 그들에게 딸린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자 자녀들은 얼마라도 재산을 상속 받기를 원했기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여쭙었다.

“저희 집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저희들에게는 아무 재미도 없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한 분을 잘 모시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재산을 물려주시지 않으십니까?”

아들·딸들이 하도 졸라대었으므로 결국 어머니는 그들이 자기를 잘 보살펴 주리라 믿고 전 재산을 모든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다.

재산을 상속한 뒤, 어머니는 먼저 큰아들에게 가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며느리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시아머니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두 뭇아들 주신 것처럼 우리 집에 와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다른 불평까지 한없이 늘어놓았기 때문에 바후땀따까라는 이름의 이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 갔다. 그렇지만 둘째 며느리도 다들 바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에도 그 집을 나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녀는 아들, 딸네 집들을 돌아다녔지만, 그 누구도 어머니를 오래도록 편히 모시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머니가 문 앞에 나타나더라도 하면 귀찮다는 듯 인사도 하지 않고 존경도 표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바후땀따가 여인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식들에게 의지하기를 그만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서는 그녀가 밤을 새며 정진하는 것을 신통력으로 보시고 광명을 놓으시어, 마치 그녀 앞에 앉아 계신 듯이 모습을 보이시며 이렇게 설법하셨다.

“실사 백 년을 산다 해도 ‘여래의 가르침(최상의 진리)’을 의지하여 수행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이 계승이 끝났을 때, 그녀는 오온(五蘊)에서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를 보고 마침내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그녀는 노년에 출가했지만, 굳은 결심으로 부처님께 정진한 결과 아주 빨리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결국 자녀들의 배은망덕(背恩忘德)으로 인한 마음고생이 오히려 간절한 발심을 일으킨 원인이었던 셈이다.

쏜나 비구니의 구도역정을 보면, 천천히 걸으면서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는(如實知見)’ 관법(觀法)을 닦아 마음을 진 후, 부처님 설법을 통해 단박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단박깨침(頓悟)’이란 간화선이니, 위빠사나니 하는 수행법과는 무관하며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든지 오로지 마음이 쉬어(休)졌을 때, 스승의 법문 한 마디에 즉시 마음의 문이 열리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설법을 ‘법의 문(法門)’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이 때문이다. 깨달음, 해탈, 열반을 찾고 구하는 ‘최후의 갈망’마저 내려놓을(放下) 때, 사람마다 저마다 갖춘 ‘본래의 얼굴(本來面目)’을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불교인문 교육 등 강좌 개강**=서울 불광사가 3개월 과정의 불교기본교육 강좌를 개강한다. 9월 22일 개강하는 아침반은 월·수 오전 10시, 저녁반은 월 저녁 7시 30분 강의가 진행된다. 20일 개강하는 토요일반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불공 스님의 지도로 수행실수가 이뤄진다. 23일 개강하는 ‘<반야심경> <천수경>’ 강좌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수업한다. 10주 동안 강의가 진행되는 ‘간다라 미술기행-불교미술로 만나는 부처님의 생애’는 24일 개강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업이 진행된다. ‘불

교로 읽는 노자’는 목요일 오전 10시 아침반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저녁반이 25일, 24일 각각 개강한다. ‘이미명과 함께 읽는 붓다의 일생’은 23일 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강의가 진행된다. (02)417-2551

●**수선제 무료명상강좌**=도심속 명상학교 수선제가 무료명상강좌를 개최한다. 서울센터를 비롯해 인천 부산 대구 광주에서 동시에 열린다. 기초명상반은 토요일 오후 2시, 정진반은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학생반은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진행된다. (02)722-6653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환주세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환문의 상담 현황**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rta.com
E-mail: heegyun@avatarta.com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 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 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미국 교육사업
전체 인수할 분 구함

◆**학교명 : 국제불교대학교**
· 법인등록 및 영업승인지역 : 미국, 괌
· 법인등록 2007년 1월 10일 등록번호 : D-15827
· 영업승인 : 2008년 2월 25일 괌

영업승인은 취득하였으나
경제 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워 현재까지의
진행상태로 인수 할 분을 찾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화, 방문,
상담 등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에 경험이 계신분이면 좋겠습니다.

· **연락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08번지 국제 불교대학교 한국교육원(연방사)**
· **전 화 : 054)654-2464 / 010-9945-2030**

국제불교대학교 이사장 주지 일봉 합장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호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격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고객 20,000원

대폭 할인서비스안내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래의 책들을 1개월 동안 20% 할인 서비스 합니다.
• 기간 : 2008년(양력) 9월 8일 - 10월 7일까지(1개월)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행, 수리, 음명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병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 → 4만원

“호타 비결서”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그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할 수 있음.
- 전화 질문 및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50,000 → 4만원

호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